

# 흔들리는 식물, 계절의 왜곡

### 영산강문화관 3월 3일까지 한국보태니컬조합 회원전 지구 온난화 속 개화시기 조명... 15일 체험프로그램도

지난 며칠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다소 추위가 절정을 넘었지만 여전히 겨울은 겨울이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서면 겨울이라는 계절은 없다. 봄, 여름, 가을의 풍경이 전시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림 속에서 피어난 꽃은 생화보다 더 생화같다.

케이워터운영관리 영산강문화관(관장 신성규) 기획전시실 2층.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 중인 '흔들리는 식물, 계절의 왜곡'은 한겨울 속 봄의 향기와 가을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한국보태니컬조합 소속 작가 12명이 참여해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식물의 개화시기를 조명한다. 더일리스트앤아트가 전시를 기획했으며 김민영, 김봉순, 김연옥, 김평화, 문유란, 박숙영, 신미영, 신혜영, 유현의, 이윤희, 이훈이, 추연희 작가가 참여했다.

보태니컬 아트는 식물을 세밀하게 관찰해 표현하는 보태니컬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다. 식물학과 예술이 결합된 장르로 식물의 외양과 생태적 특징 등을 예술적으로 구현한다. 'botanical' (식물의)과



문유란 작 '동백나무'

'art' (예술)가 합성된 것에서 보듯 작가의 예술적 감각을 토대로 식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낸다.

사실 기후 위기로 지구상의 생물 종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꽃이 피는 시기, 열매를 맺는 시기, 낙화하는 시기 등 생애 주기가 달라지고 있다. 남쪽에서만 생산되던 열대 과일이 점차 북상해서 출토되는 것은 기후 변화와 연관돼 있다.

오랫동안 균일하게 이어져오던 자연의 순환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 탓이다. 그림에도 식물은 변화에 적응하며 생태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시장은 다양한 원에 전시장 느낌을 발한다. 은은한 꽃향기 너머로 한 무리의 나비 때가 사분사분 날갯짓을 하며 날아갈 것 같다. 상이한 생김새만큼이나 식물은 그 존재의 이유를 내재한다. 존재하는 모든 식물은 저마다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식물의 미를 초점화한다. 과학과 예술, 식물이 정밀한 조화를 이룬 그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기후로 대변되는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작가들은 '기후위기에 흔들리는 식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바람에 흔들리는 식물'에 방점을 둔 것 같다. 저마다의 색상과 형태, 이미지로 구현

된 식물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들이 사라지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반문하는 듯하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게 한다면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는 성공인 셈이다.

전시기간 연계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오는 15일(오후 2시)에는 원데이클래스의 '탄생화 북마크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전시 관람 후 감상평을 남기면 총 15명을 선정 더일리스트앤아트가 제작한 보태니컬아트 굿즈를 증정한다. 더일리스트앤아트는 예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보태니컬아트 및 작가 그림 원화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성규 영산강문화관장은 "기후 위기와 맞물려 환경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기후 변화 속에서도 식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법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문화관 네이버 카페 및 안내데스크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추연희 작 '진달래'

## 정월대보름, 풍물놀이 한마당 함께 해요

### 광주문화재단 12일 ...민속놀이 체험·길놀이 공연 등 무료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의 의미는 컸다. 조상들은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농점(農占)이나 공동 제사 동제(洞祭)를 올렸으며, 액막이를 통해 건강을 빌거나 달집을 태우는 등 다양한 풍속 행사를 펼쳤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 '정월대보름, 풍물놀이 한마당'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전통문화관 숲을대문 일원에서 진행한다. 정월대보름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자리로, 모든 체험과 공연은 무료.

먼저 시민들의 만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전통연희놀이연구소는 '길놀이 공연'을 펼친다.

'거리굿'이나 '길굿'으로도 불리는 이 놀이는, 관객과 공연자가 함께 이동하면서 탈춤 등을 연행하는 연희를 일컫는다. 탈춤 외에도 풍물패나 길군악대 등이 풍악을 울리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숲을대문 일원에서는 죽방울놀이, 사방치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비나놀이 등 우리 전통놀이 체험이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쉽고 간단한 대보름 놀이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통문화팀 이형동 담당은 "기쁨이 가득한 정월대보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공연



과 민속놀이 등 다양한 한가위 행사로 채워질 예정이다"며 "이 밖에도 민속놀이를 체험한 뒤 스탬프를 받아오면 나무맹이 민속놀이 키트와 부럼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선착순 진행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



### 한국 남자 무용수 로잔 콩쿠르 첫 우승

### 발레리노 박윤재 "5살 때부터 꿈꿔온 무대"...발레리나 김보경 8위

16세 발레리노 박윤재(서울예고·사진)가 스위스 로잔발레콩쿠르에서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우승했다.

박윤재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로잔발레콩쿠르(Prix de Lausanne·프리 드 로잔) 결선 결과 1등을 차지했다.

한국인 발레리노가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1985년 강수진 발레리나, 2007년 박세은 발레리나가 우승한 바 있다.

박윤재는 "발레를 시작한 다섯 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꿈꿔왔던 꿈의 무대인 '프리 드 로잔'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파이널

(결선) 무대까지 서고 큰 상까지 받게 돼 너무나 기쁘고 믿기지 않는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로잔발레콩쿠르는 바르나, 잭스, 모스크바, 파리 콩쿠르와 함께 세계 5대 발레 콩쿠르로 꼽히는 대회로 올해 53회째를 맞았다. 15~18세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어 무용수들의 등용문으로 불린다. 입상자들은 연계된 해외 발레단이나 발레 학교에 갈 수 있다.

올해는 85명이 대회에 참가해 이 중 20명이 결선 무대에 올랐다.

결선에 오른 한국 무용수 가운데 김보경 발레리나(17·부산예고)는 8위로 입상했다.

/연립뉴스

## 민속詩로 문학 집대성...손광은 전남대 명예교수 별세

### 보성 출신...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장 역임 등 지역문학 활성화

향토적, 토속적 기락을 토대로 정갈한 시를 썼던 손광은 시인(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이 별세했다. 향년 90세.

큰 딸 지형씨에 따르면 손 시인은 폐렴으로 지난 해부터 입원을 반복했으며 이 날 급격히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936년 보성군 노동면에서 태어난 손 시인은 전남대 문리과 대학을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을 거쳐 충남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62년 '현대문학'에 김현승 시인 추천으로 문단에 나온 그는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시를 쓰는 문인으로 남도 문학계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인은 민중의 삶과 숨결을 마당굿처럼, 판소리처럼 살아 약동하는 가락으로 형상화했다. 손 시인이 '민속시'로 문학을 집대성한 최초 민속시인으로 불리는 것은 그런 연유다.

문단 데뷔 50주년을 맞아 지난 2015년 그의 시정신과 애향심을 기리는 시비가 생가인 보성군 노

동면 금호리에 세워졌다. 유작된 작품은 '보리' '타작'으로, 60년대와 70년대 사회 일각에서 행해졌던 부정적세력 색출을 '반어적'으로 꼬집은 시다.

손 교수는 시비 건립 당시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보리수매와 연관된 의혹이 적지 않았는데 속 시원하게 풀어내지 않은 채 송사리 때만 잡고 변죽만 울리곤 했다"며 "한바탕 도리깨질을 하듯 시원하게 후렷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인의 초기 작품은 풍자적이고 사회적인 시풍을 보였으며 이후 작품은 예술적이며 심미적인 경향을 띠었다. '고향 앞에 서서'는 고향에 기반한 예술적 삶을 집약하고 있으며 '그림자의 빛깔'이나 '신명을 풀어야' 등 작품집은 민속에 근거한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

손 시인은 '다형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를 맡아 다형의 문학 정신과 시 세계를 알리는 데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현재 전남대 국문과 및 동 대학원 출신 제자들, 문인들은



문학을 토대로 활발하게 연구 및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제자들이 스승의 문학세계와 생을 조명해 '손광은의 시와 시세계'(태학사)를 펴내 화제가 됐다.

제자인 임환모 전남대 국문과 교수는 "선생님이 교육자로서 남기고 간 인간적 풍모와 인품이 후학들에게 큰 자산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23년 제1회 김현승 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 당시 손 교수는 "스승이고 존경하는 김현승 시인의 이름을 딴 시문학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큰 딸 지형씨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유족으로 대전에서 치과사를 하는 딸 지형 씨, 지원 씨가 있으며 민소는 대전 유성선병원장례식장(VIP2호실)에 마련돼 있다. 발인은 10일 낮 12시이며 장지는 세종은하수공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